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손길아래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공장의 발전로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연혁소개실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은 력사가 있는 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파배기, 빵, 사탕, 과자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형과 제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에서 준 과업대로 원료준비로부터 제품생산과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식료공업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조차 엄두를 못내는 기술공정의 현대화를 완성한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손로동이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었던 파배기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것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사람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민족인가를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철

저히 보장하고 로력을 절약하며 생산인가를 대폭 낮출수 있게 생산공정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가장 정확하게 관철한 공장의 기술집단과 평양기계대학교원, 연구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적과제들을 높이 정해주고 그 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할 때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 경험을 다른 식료공장들에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고 지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생산환경의 무균화, 무진화를 보장하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완벽하게 확립된 일터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밖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공장, 자신께서 정이 든 공장이라고 거듭 만찬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7월 최전연초소들을 시찰하던 날 공장에서 생산하여 정상적으로 보내주고있는 당과류들을 보았는데 심심산골 외진 초소에서 이 공장 제품을 보니 감흥이 새로왔다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고, 군인들이 무척 좋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괴로가 순간에 가서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에서 앞으로도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품을 군인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 타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은 항공륙전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투하되어 행군, 숙영, 대상물타격을 비롯한 실동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함으로써 륭전병들을 종합적인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키고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적가능성과 구분대들의 전투능력을 확정한데 목적을 두었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제162군부대관하 구분대들의 항공륙전병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수송기편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대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항공륙전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항공륙전병들이 우박처럼 쏟아져내렸다.

서늘푸른 칼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

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항공륙전병들은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항공륙전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고, 담대한 배짱군들이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평시의 훈련에서 바치는 땀이 없이 레일의 전투승리를 바랄수 없다는것을 깊이 간직하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

으켜온 항공륙전병들은 다음전투행동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훈련명령을 집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제방법을 구현한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과의 대결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언제 어떤 정황

이 조성되여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새로운 훈련방법과 방식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장병들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천각 새로 건설

전천각이 새로 건설되어 봉사를 시작하였다. 자강도 전천군 읍지구에 날아갈듯 한 합각지붕을 엮고 일떠선 각에는 대중식사칸과 결혼식방, 분나무방, 은방울방, 진달래방 등으로 특색있게 이름을 단 방들이 정갈하게 꾸려져있다.

군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인민들이 즐겨 찾는 급양봉사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건설기능공들을 망라한 돌격대를 조직하고 힘있는 화선식정차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이도록 하였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설계와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우

고 공사조직과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기초굴착, 팔조조립, 기와생산 등을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겼다.

전천각에서는 강병이, 메밀, 감자농마국수를 비롯한 각종 국수를 전문으로 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봉사하

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전천각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요리의 가지수를 늘이고 봉사수준을 높이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의 입에서는 《대화》와 《협력》에 대한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에도 《8.15경축사》라는데서 《환경협력의 통로》, 《민생의 통로》, 《문화의 통로》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언제인가는 비무장지대안에 《세계평화공원》을 꾸리자고 하고 또 어디 가서는 《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물질성회복》을 말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북남관계의 본질적문제해결을 도모시킨 부차적인 문제들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 북남관계를 진실로 개선하자고 하면 이미 북남사이에 합의되고 리해해오던것을 시행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중요하것이다.

북남사이에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들이 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이 력사적인 선언들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졌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7년간 북남사이에

21차례의 상급회담과 13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차례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이다. 당국회담도 진행되고 민간급의 각이한 대화들도 수시로 진행되어왔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도 활기있게 진행되어왔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겨레의 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협력의 힘찬 동음이 울려 퍼졌다. 공화국의 뜨거운 동포애의 풍파 북남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된 금강산관광사업은 6.15시대와 더불어 더욱 활기를 띠고 벌어졌다.

특히 2007년의 력사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창설, 개성공업지구건설확대, 백두산관광 등 여러 분야의 쌍방향의들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북남관계는 한순간에 동결되었다. 리명박 《정권》은 북남

공동선언들에 대해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며 북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무효로 몰고다니고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었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대화도 끊기고 배왕길도 막히었으며 활성화되던 협력사업들도 차단되었다. 리명박 《정권》은 저들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도 일방적으로 중지

시켰다. 하여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여 10년간 근 200만명에 달하는 남녘의 각계층인민들이 찾았던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로의 관광길도 가로막히었다.

보느바와 같이 좋게 나가 가던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과거로 돌린것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것은 부정하고 그 무엇을 새롭게 내들기만 한다면 북남관계는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차적인것을 자꾸 꺼내들기만 아니라 북남사이에 이미 합의되고 리해해오던것들을 주저없이 시행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며 그에 대하여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그 무엇을 제기하는것이 순차일것이다.

정확준

### 문제해결의 근본은 합의리행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7년간 북남사이에 21차례의 상급회담과 13차례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군사당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차례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서 전례없는 기록이다. 당국회담도 진행되고 민간급의 각이한 대화들도 수시로 진행되어왔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협력사업들도 활기있게 진행되어왔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등장으로 북남관계는 한순간에 동결되었다. 리명박 《정권》은 북남

공동선언들에 대해 《부도난 약속어음》이니 뭐니 하며 북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무효로 몰고다니고 6.15의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었다.

리명박보수 《정권》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대화도 끊기고 배왕길도 막히었으며 활성화되던 협력사업들도 차단되었다.

리명박 《정권》은 저들의 불찰로 일어난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금강산관광도 일방적으로 중지



# 민족의 백여년전과 오늘

8월 29일은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4년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군사적위협과 갖은 공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는 우리 민족의 거센 항거가 두려워 29일야이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의 날조로 조선을 사실상 식민지로 강점한 일제는 수년후 이 《조약》의 날조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선을 자들의 지배 밑에 두었다.

반민권의 찬란한 역사와 슬기로운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외세의 비참한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 500여년간 존재해온 조선봉건정부는 사대와 외세의존에만 매달리고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제 힘을 기울일 줄을 안하였다.

그러다나니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지고 빈번한 자기의 군대조차 가지지 못하여 대포를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항거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졸지에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던 우리 민족, 지구상에서 그 이름마저 빛을 잃었던 조선이 100여년이 지난 오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 있는 것인가.

당당한 자주강국, 핵보유국,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이 되어 그 위용 만방에 떨치고있는 것이다.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도 힘이 약하면 침략자들에게 먹혀야 하는 힘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의 실례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안명은 자기의 강한 국력, 군력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하더라면 공화국이 지닌 이 위대한 불멸의 국력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하늘이 준것도 아니고 그 누가 선사해준것도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자력의 정진과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찌기 빼앗긴 나라의 남에게 의존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의 힘으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백두광야에서

피어린 항일혈전을 벌리시어 강도일제를 무찌르시고 나라를 해방해주셨다.

이 나날 망국은 순간이며 복국은 천년이라는 것을 뼈에 아리게 새겨두신 주석께서는 해방후 군건설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어 미국의 무력침략으로부터 공화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탁월한 병진로선도 제시하시며 공화국을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아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위업을 계승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선군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부터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판문점과 초도, 351고지와 오성산을 비롯한 최전방고지들과 최전연초소들을 수없이 찾고 또 찾으시며 인민군군인들에게 조국수호정신을 심어주고 별칭의 힘과 지략도 안겨주신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아래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강국도 다시는 조선을 침략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자위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다.

공화국의 국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에 의하여 더욱 역척같이 다져지고 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군부대시찰을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심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실 자신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오성산과 칠령, 무도야와 장재도, 초도와 판문점, 까칠

봉초소로 선군장정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부대의 싸움준비완성을 박차를 가하도록 이끄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제시하시어 강성국가건설과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었다.

지금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모한 침략소동은 도수를 넘어 최절정에 달하고있다. 이른바 《맛춤형억제전략》에 따라 공화국을 불의에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합동실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핵탄을 적재한 미국의 전

략폭격기들이 쉬임없이 조선반도 상공에 날아와 우리 민족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그러나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선군으로 다져진 막강한 군력이 있어 공화국의 안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변명은 확고히 담보되어있다.

지난 6월말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화환을 그 누가 마련해 주는것도,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역

제력을 천백배로 더욱 다져나가는데 최대의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뜻깊은 전승절인 7.27을 계기로 세찬 심판을 내뿜으며 창공높이 날아오른 전술로켓들의 장쾌한 광경은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떨칠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가까이에 있진 지구상 한쪽끝에 있진,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마음먹고 골라가며 타격할수 있는 초정밀화된 여러 가지 화력타격수단들이 완비되었음을 실증해주며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조선은 이제 힘이 약해 남에게 먹혀야 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제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침략의 야성도 송두리채 날려보낼수 있는 자위의 억센 강국이다. 이런 강력한 공화국이 있어 겨레는 배심든든하게, 신심들이 자주통일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시대와 력사발전에서 청년들이 노는 역할은 자못 크다. 그들에 의해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흥망도 많이 좌우되게 된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이 융성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리라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나라나 지역들이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사회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고있다.

어떤 수령,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데 따라 청년들의 운명과 전도,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달라진다.

청년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그 어느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주도하고 선도해나가는 주력군, 기둥으로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화성의축에서 새세대청년들을 묶어세우시어 깃발힌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전위조직을 내오시였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책을 그대로 이시어 청년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청년들이 민족자주위업실현에서 자기의 시대적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 청춘과 미래

이끄시었다. 어느해 청년절이었다. 그 날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간이 고난과 시련속에서 어떻게 강철과 같이 단련되는가를 보여주는 한 외국영화에 대해 상기하시면서 사실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우리 청년들처럼 훌륭한 청년들은 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었다.

주제98(2009)년 4월에도 그이께서는 우리에게는 수천만금의 재부가 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것이 더 귀중하다. 재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라고 하여도 청년들이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견디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우리는 주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청년들의 대부분을 가지고있기에 든든하다고 하시었다.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미

래의 주인공,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값높은 이름으로 청년들을 내세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더없는 재부로, 금싸레기로 여기신 장군님이시었다.

어제나 그이께서는 자신의 동상건립문제를 말씀올리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요즘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어디에 세우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대인수님들의 숭고한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주제 101(2012)년 8월 전선시찰의 길에서도 청년절을 맞는 나라 청년들을 축하하시어 친히 축하문도 보내주시고 전국각지의 청년대표들로 청년절경축대회까지 가지도록 하시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진다고 하시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의 선두에 세워주시는 령도자의 두려운 믿음과 기대속에 공화국의 청년들은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자랑떨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마식령속도의 창조자들도 청년들이고 우주를 정복하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도 언제나 그들이 있다.

령도자의 뜻이라면 산도 떠움고 바다도 메우는 힘있고 활력있는 청년들이 있기에 공화국은 젊고 미래는 창창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도 머지않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 폭우속을 날은 비행기

주제83(1994)년 7월초 어느날 강원도의 한 산간마을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날로 의료진은 구급조치를 취했으나 정상체중에 못미치는 아기들의 몸상태는 시원치 않았다. 피덩이 같은것들을 꽤 살려낼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산모는 물론 온 동리사람들의 하나같은 우려와 위구였다. 장마에 의해 길이 험하여 오도가지 못하는데 날이 바뀌면서 의사들의 초조감도 여간 아니었다. 그런데 하늘이 더 컴컴해지며 번개가 치고 우리가 울면서 대들기갈

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무렵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시었다는 비보가 온 나라에 전해어졌다.

천천벽력같은 대공상에 산청초목도 비분에 잠겼던 그때 해당 부문들에 명령이 하달되었다.

인민군 공군부대에서는 종래에 빠진 산모와 세쌍둥이의 후송을 위해 즉시 긴급비행을 조직하며 평양산원에서는 강력한 의료진을 현지

에 증파하며 평양에 있는 비행장에서 날씨에 관계없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 위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데 대한것이였다.

누구보다 크나큰 상심의

아름을 안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쌍둥이의 생명을 넘려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로 그들을 평양산원으로 후송하여가이여 살려내도록 조치하시였던것이였다.

즉시 그날로 비행기가 폭우속을 뚫고 현지로 날았다. 산모와 가족들 그리고 마을사람들 남녀로소가 비행기를 맞이하였고 세쌍둥이를 태운 비행기는 다시금 하늘로 날아올랐다.

세쌍둥이는 155일만에 완쾌되며 평양산원에서 만사탑의 축복을 받으며 퇴원하였다.

본사기자

교육과 인재를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력사에 선결과일이 있었다는 명인들치고 후대교육을 소홀히 한 이는 없었다.

그러나 만경대가문의 지원의 뜻처럼 심오하고 원대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실천으로 구현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중시, 미래사랑에는 비길수가 없다.

평양의 새살림거리에 있는 김형직사범대학정문에는 대학원관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손수 남긴 글밭을 그대로 정갈한 석재에 부각하셨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인 1994년 7월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대학 교원, 학생들의 소망을 헤아리시어 친히 현관을 써주시었다.

그날 그이께서는 대학원관을 놓고보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하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

으로 삼고 집에는 물론 순화 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볼것처럼 큼직하게 새붙어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지원이란 문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늘 사람은 원대한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리

자면 먼저 배워야 한다. 사람이 배워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생기기 되고 그대야 혁명의 길에 나설수 있으며 또 혁명을 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곤 하시었다. 반일독립투쟁을 벌리시는 나날 가시는 곳마다에 학교를 세우시고 지원의 뜻으로 독립운동자들과 동지들을 계몽시키고 그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무격려하신 선생님이시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아버지에 나라고 독립하면 학교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현관을 세로로

발로 길이 남게 되었다. 그 친필현판에는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480여 차례 걸쳐 170여개의 교육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민족교육발전에 기울으신 수령님의 로고와 헌신이 깃들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나온 예국의 력사와 고귀한 전통은 빛나게 계승될 때 더 밝고 양양한 전도를 기대진다고 하시면서 교육발전과 후대육성사업에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중시, 미래사랑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반적12년제무교육제가 새로 실시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으로부터 한해 일을 잘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며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친도개혁의 심마음의 학교로부터 도시에 새로 건설된 온화과학자거리의 교육자살림집들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에 펼쳐지는 교육중시,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뜻으로 비약하며 흥하는 민족의 밝은 앞날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 민족의 앞날 지원의 뜻으로 본다

씨보시고 가로도 씨보시며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안겨들도록 하겠는가 마음을 쓰고 또 쓰시었다. 그이께서는 내러손 글보다 가로 쓴 글이 보기에 좋고 길기에 더 편리하다고 하시면서 현관을 대학에 보내 겠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그렇게되어 김형직사범대학 현관에 새겨진 친필은 아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친필과 함께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

약할수 있다.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원의 사상은 아버이수령님의 대를 거쳐 자신의 대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오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결음

## 체육강국건설의 길에서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키고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공화국을 체육강국의 지위에 하루빨리 올려세우도록 하자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결심이다. 그이의 체육강국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70여치의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금메달 160여개를 포함한 도합 380여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체육강국으로 도약하는 조선의 발전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체육발전을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도를 제시하시였으며 날과 달을 이어 체육부문사업을 세심히 지도하고계신다.

지난 8월순은 어느날 그이께서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여자축구팀을 지도하시었다. 그날 모든 선수들은 국제경기를 앞두고 평시에 련마한 자기들의 기술과 전술 및 육체적능력을 보여주며 국제경기에서 우월함을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미 국가종합팀 남자축구팀을 보여주신데 이어

그날 여자축구팀을 지도하신 원수님께서는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더욱 완성하여 축구기술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훈련해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있게 될 국제경기에서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남김없이 펼치

적으로 개진되는 체육시설 하나하나에 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울이시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보살핌이 깃들여있다. 우리 체육관도 그이의 지도밑에 기구종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들과 근로자들의 대중체육활동도 도모할수 있게 다가가능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관으로 일선되게 되었다.

《국제경기에 참가할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나는 체육강국건설을 결심하신 그이의 구상과 체육발전

에 기울이시는 로고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최근에만도 국가종합축구단, 평양체육단, 압록강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의 축구장들에 사계절기후변화에 구애되지 않는 인공잔디를 형성하게 된것

도 그이께서 취해주시는 조치에 따른것이였다. 훈련조건이 개선되어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졌으며 여러가지 수단들에 의한 훈련효과도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었다.

한때 국가종합팀선수로 활약하며 아시아구계의 철벽의 방아수로 유명했던 축구전문가인 인민체육인 탁영빈의 소감이다.

《요즘 레스링, 력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별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의 훈련을 보면 서 나는 생각이 많다. 청춘기 리체육촌, 5월1일경기장, 룡라인민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새로 건설되거나 보다 현대

적으로 개진되는 체육시설 하나하나에 나라의 체육발전

전에 기울이시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보살핌이 깃들여있다. 우리 체육관도 그이의 지도밑에 기구종목을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경기들과 근로자들의 대중체육활동도 도모할수 있게 다가가능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관으로 일선되게 되었다.

《국제경기를 앞둔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지도하시며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을 위해 기울이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레일을 그려보았다.

그날의 축구경기장을 힘차게 달린 선수들의 보폭에서 령도자의 발걸음따라 국제무대에서 우월함을 떨친 체육인수들의 미더운 모습을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체육활동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체육의 나라, 체육강국의 레일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준비사업 마감단계에서 추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기자와 대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는 29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와의 대담에서 북측 선수단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준비정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의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45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된다. 우리는 북남관계가 악화된 정세속에서도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경기대회를 큰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데는 비록 북남사이의 관계가 긴장하고 대결이 첨예해지지만 이번 대회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려는데 있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커다

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위한 국가종합팀 남측구급열거기를 몸소 지도해주셨습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남측구급선수단의 검열경기를 장시간 지도하시면서 우리 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체육인들이 이번 경기대회를 통해 겨레의 화해와 단합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체육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하기에 지금 우리 선수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경기대회참가의 계기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준비를 마지막 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그는 이번이 진행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150명의 선수들, 감독, 심판원 등 필요한 보장성원들을 파견하게 되며 남측구급, 수영(수중제조무용, 물에뛰어들기), 유술, 조정, 사격, 럭비, 기계체조, 활쏘기, 권투, 레슬링, 탁구, 커누, 마라톤, 가라데와 같은 14개 종목에 출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는 올림픽정신에 맞게 아시아경기대회 규정과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도 적극 참가하고있다.

얼마전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주최식과 국제체육학술대회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제체육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당의 생활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널리 소개한 전하였으며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와 관련한 문제들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9개 팀이 참가하는 남측구급은 중국, 파키스탄과, 11개 팀이 참가하는 여자축구는 헝가리, 중국 홍콩과 한조에서 예선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는 이 기간에 박차를 가하여 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완료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공화국기를 창공에 높이 휘날리겠다.

그는 응원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큰 규모의 응원단을 내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가는데 대해 《대남정적공작대》나, 《남남갈등 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로골적으로 헐뜯고 비난하다 못해 지난 7월에 진행된 북남실무회담에 나와 응원단규모와 우리 공화국기의 규격문제를 시비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입박에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까지 내들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오는것을 우려하면서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8월 20일부터 인천에서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주최식과 국제체육학술대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이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남측당국 관계자들에게 통지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이 근 70년을 헤아리는 분열의 고통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통일의 표대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행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며 대한 자주성의 리념이다.

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통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나라의 통일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은 민족분열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으며 나라의 통일문

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특정한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수 없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민족의 단합없이 통일도 없고 민족공동의 리익도 지킬수 없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를 높이

추켜들

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자주통

일의 표

대이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행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

문제해결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며

대한 자주

성의 리념

이다.

자주는

조국통일

의 근본원

칙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

는 외세에

의하여 인

위적으로

갈라진 민

족의 혈맥

을 다시

잇고 민족

적통합을

이룩하는

문제인 동

시에 전국

적범위

에서 민족

의 자주성

을 실현

하는 문제

이다.

조국통일

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

을 위한

우리 민족

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나라의 통

일은 마

땅히 우리

민족이 주

인이 되어

민족의 자

주적의사

와 요구에

따라 민족

자재의 힘

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

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것

은 민족

분열사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

이다.

민족자

주가 조

국통일과

민족번

영의 길

이라면

외세의

존은 민

족의 영

구분열

과 망국

의 길

이다.

우리 민

족끼리

의 리념

에 민족

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사

대와

외세의

존을 배

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

여 견결

히 투쟁

할수 있

으며 나

라의 통

일문

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

주적으

로 풀

어나

갈수

있다.

우리 민

족끼리

는 민

족의 대

단결로

자주통

일을 이

룩할데

대한 민

족단합

의 리념

이다.

조국통

일은 어

느 특정

한 계급

계층의

힘만은

실현할

수 없

으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

해서만

성취할

수 있

는 거

족적위

업이다.

민족의

단합

없이 통

일도 없

고 민

족공동

의 리익

도 지킬

수 없

다. 민

족의 힘

은 단

결에

있다.

우리 민

족끼리

의 기

치

를

높이

추

켜

들

어야

한

다.

우리 민

족끼리

의 리

념은

자주

통일

의 표

대

이다.

6.15

공동

선언

의 기

본행인

우리

민족

끼리

는 조

국통

일문

제를

해결

에서

민

족자

주

의 기

치를

높이

들

며

대

한

자

주

성

의 리

념

이

다.

자

주

는

조

국

통

일

의

근

본

원

칙

이

다.

우

리

나

라

의

통

일

문

제

는

외

세

에

의

하

여

인

위

적

으

로

갈

라

진

민

족

의

혈

맥

을

다

시



《조국에 오기전까지 조선은 닫힌 나라, 모든것을 숨기는 나라라고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있었다. 실지 와보니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전혀 숨김이 없는 나라,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이라는것을 체험하였다.》

《물속에 뛰어들어 조국인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싶다. 무슨물놀이장에 가서 그렇게 웃고 떠들며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보내고싶은 행복한 인민들을 서방에서는 조선인민들이 굶주리며 가난하게 살아가는다고 비평하고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알자면 누구나 여기에 와보아야 한다.》

《조선은 땅도 사람들도 아주 선경하다. 지구상에 이렇게 신성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엄청난 현실앞에서 내 마음도 정화되고 조선으로 끌려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얼마전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에 참가하였던 재로씨야동포들과 로씨야인이 공화국의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심경을 토로한것이다.》

《그들이 아니라 이곳을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든든바와는

# 최악의 인권지옥은 어디?

판이하게 다른 조선의 현실이라며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동족대결에 환장해있는자들의 입에서는 계속 열도당도않는 잡소리 가 튀어나오고있다. 얼마전에 있는 남조선미국간의 《학술회의》, 《국제인권연맹 11차총회》라는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인권탄압》이니, 《인권문제》니 하는 소리를 채친것이 바로 그러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화국에 대해 말하려면 백편 듣는것보다 한번이라도 와서 보고 입을 열어야 할것이다.

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란 북을 체제적으로 불신, 거부, 적대하는 미국의 보수언론들의 억지 주장이나 공화국에 죄를 짓고 도망친 《탈북자》들의 악담을 얻어 들은것뿐이다.

《내 생애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라는 잡초가 돌아날

수 없다. 그릇된 인식으로 색안경을 끼고는 사물현상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는다.

인권문제는 오히려 남조선 사회전반에 악성종양과 같이 퍼져 범람하고있다.

수개월이 지났으나 《세월》호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명에 간 원혼들은 오니 하는 소리를 채친것이 바로 그러하다.

하지만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피눈물에는 눈감고 슬픔의 신음에는 귀하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민심의 절규에 일도 병국하지 않고있다.

지금 남조선사회에 풍랑을 일으키고있는 윤일병탈사사건도 심각한 인권문제의 단견실례이다.

《폭행, 구타,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과 같은 사병들이 해마다 늘어나 인민들속에서는 《내 생애같은 내 아이를 군대에 절대로 보낼수 없다.》고 하며 초등학교학생들까지도 군대가기 싫다고

겁에 질려있다. 또 윤일병과 같은 《관심사병》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A급 관심사병》은 8634명, 《잠재적위험이 높은 B급 관심사병》은 무려 3개사단의 규모로서 군부 우두머리들은 《군을 유지할수 없을 정도》라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남조선군의 범죄는 지난해에 3757건, 올해 상반기만도 1841건으로 계속 증가되고있다.

사회적인 인권유린상태는 더 말할것 없다. 지난 25일 남조선의 야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발생한 성범죄건수는 2만 5591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범죄건수만도 무려 1만 5565건으로 지난해 비해 1000건이상 폭증하였다고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해 1만 6785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벌써 1만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년별별 자살시도현황》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 년령대에 걸

쳐 하루 6명정도로 자살시도 건이 있었고 그중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친다고 하였는데 몇가지 사실자료만 놓고서도 남조선사회의 인권실태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잘 알수 있다.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 인권불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이지도 않는 《인권문제》만 떠돌고있으니 동족대결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동족대결분자들은 한마디 말하진 않는데도 현실을 다시 보고 생각하는 버릇부터 키워야 할것이다.

현실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고와 험담 입이 자자들의 운명에 어떤 후과를 미칠것인지는 예측할수 없다. 본사기자 김정혁

## 변방에 위치한 미군기지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싸드》(THAAD)를 배치하는 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분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6월 남조선 미국련합군사령관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인론에서 현재 사전조사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남조선에 《싸드》를 전개하기 위한 최종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 4일 미국방부는 남조선인론에 준 대담에서 《《싸드》의 《한》 반도배치는 분명히 신뢰할수 있는 방어능력》이라며 《미국은 《싸드》 부대의 《한》 반도영구주둔을 고려하고있다.》는 립장을 밝혔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감시해오면서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감시해오면서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감시해오면서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미 2006년부터 일본에 두대의 《엑스밴드레이더》를 배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감시해오면서 대륙과 잇닿은 남조선에 배치될 경우 조선반도뿐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의 넓은 지역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싸드》를 배치하는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심각한 군비경쟁과 군사적긴장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방공시스템을 확대 배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조선에 방공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경우 《한》 반도핵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몰고가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중국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은 조선반도의 안정과 전략적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에 거머잡고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것은 변방에 위치한 공화국의 위기를 위협하는 일이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어차피 미군에 의해 조선반도지정권을 넘어 주변나라들에 대한 감시에 리용될것이며 미국에 정치군사적도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우려와 반대때문이었다. 그러한 미국이 《북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끝내 남

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는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심각한 군비경쟁과 군사적긴장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이 방공시스템을 확대 배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남조선에 방공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경우 《한》 반도핵 문제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몰고가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중국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도입은 조선반도의 안정과 전략적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에 거머잡고 《싸드》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것은 변방에 위치한 공화국의 위기를 위협하는 일이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어차피 미군에 의해 조선반도지정권을 넘어 주변나라들에 대한 감시에 리용될것이며 미국에 정치군사적도 조선반도주변나라들의 우려와 반대때문이었다. 그러한 미국이 《북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끝내 남

## 남조선군내 폭력범죄진상에 대한 은폐시도 란로

남조선군부당국이 폭력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19일 한 야당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금 괴뢰군살이에 시달리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여 유가족들에게 보배지 못하고있는 유가족 시신인 룡군에만도 지난 5월 30일 당시까지 150여구나 된다. 그중 18구의 시신은 군부당

국이 자살로 확정함에 대해 유가족들이 동의할수 없다고 하면서 항의의 표시로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화장과 시신인수를 거부하여 팽창고에 보관된 상태에 있다. 나머지는 사망당시 군부당국이 《순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으니 화장부터 하라.》고 유가족들을 구

들이 유가족들을 설득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시신처리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문제는 이 계획이 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상의 정상화》정책에 따라 괴뢰군부당단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부패당

은 시신감정의 길을 차단하여 괴뢰군내에서 사망의 1차적인원인으로 되고있는 폭력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군부내 폭력행위를 더욱 조장하여 괴뢰군을 미제의 식민지고용군으로, 동족대결의 수단으로 철저하게 길들여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의 불순한 음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정혁

## 한 세기 이상 쓰이고있는 식민지명에 (4) 빼앗긴 존엄, 빼앗긴 군통수권

남조선에는 일명 《국군》이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다. 하지만 《국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외세의 대포발, 침략의 돌격대로 되고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란것도 명색뿐 실지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미군에 쥐여져있는것이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남조선군내의 통수권은 《대전협정》과 《합의의사록》과 같은 《협정》들에 의해 미국이 행사하고있다.

1950년 7월 리승만과 맥아더사이에 편지교환의 형식으로 체결된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일명 《대전협정》)에는 전쟁기간 남조선군내의 통수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 1954년 11월 17일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의 보충 《협정》으로 꾸며진

《합의의사록》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남조선방위의 책임을 분담하는동안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하고있다. 남조선군내의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라는 기구를 통해서도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있다.

원래 련합군이라고 하면 병력을 제일 많이 낸 나라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것이 국제적관례이다.

하지만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수만명밖에 안되는 미군이 그 수심배에 달하는 남조선군내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있다. 《련합군》 무력을 통솔하는 사령관뿐 아니라 참모장관과 주요구성군사령관의 자리는 미군장성들이 차지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참모부에서조차 기본인 작전, 군수부문 등은 모두 미군장성이 담당하고 남조선군

의 장성은 극히 부차적인 부분을 맡고있다. 결국 《련합군》의 실권은 모두 미군이 쥐고있고 남조선군내의 미군의 통솔권에 끌려다니는 한낱 고용군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의 《헌법》에는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진짜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련합군》 사령관직을 차지하고있는 남조선장성 미군사령관이며 그의 승인없는 한발자국도 이동할수 없는것이 남조선군내의 처지이다.

하기에 인제인가 남조선의 《월간조선》까지도 《《대한민국》이 과연 국가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검토해본다.》는 론제일에 《국방을 외국군대에 의탁한 것은 독립국이 아니다. 《한

국》은 국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은 미국사건의 아웃자락에 매달려 2015년으로 예정되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또다시 연기하려 하고있다.

군통수권을 외세에 수십년 동안이나 통제로 맡겨놓고도 모자라 그것을 반환받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것이야말로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미국없으면 살수 없다고 여기는 비굴한 사대의식과 매국배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모든것을 좌지우지하며 실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있는 막후조종자, 통치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정통성》이니 뭐니 하며 마치 《자주권과 독자성》을 가지고있는듯이 광고하는것은 미국에 빌붙어 사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키기 위한 유치한 놀음에 불과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끝)

언제인가 미국 전 대통령 카터가 《뉴욕 타임스》에 이런 주장을 실은적이 있다. 미국에는 《세계인권선언》으로 처신할 권리가 없다고.

의미해보면 세계인권선언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자국내 인권문제도 똑똑히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미국이 그 누구를 심판한다는것이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것이다. 스스로도 인정한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이 날이 갈수록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청년살해사건이 그렇다. 알려지지않지만 지난 9일 미국 미주리주의 피구슨시에서 백인경찰이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18살 남 흑인청년을 총으로 무참히 쏘아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도의 인종차별과 인종중요사상이 골수에 짙은 백인경찰의 야수적인 만행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죄인 《죄》로 미국사회에서 《2부류》 공민취급을 당하며 갖은 멸시와 학대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 총기로 사람을 마구 죽이는 미국식 《인권》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요 하는것들을 장황하게 만들어내군 하는 그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켜보는 인권판정의 피고석에 앉아

들인 분노를 폭발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피구슨시에서 시작된 반인종주의의 항의시위는 삼시에 미국전역으로 확대되어 14일에만도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100여개의 도시에서 수많은 군중이 거리에 떨쳐나섰다. 문제는 흑인청년을 살해한 백인범죄자를 비호두둔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이다. 범피자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의 항의에는 귀를 막고 당국은 군견까지 앞세운 중무장한 경찰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 19일에는 미주리주의 스프트 루이스에서 23살 남 흑인청년 한명이 경찰이 쓴 총탄에 맞아죽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

르다고 하여 흑인청년들을 마구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은 지금까지 《인권요호》는 삼시에 미국전역으로 확대되어 14일에만도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100여개의 도시에서 수많은 군중이 거리에 떨쳐나섰다.

문제는 흑인청년을 살해한 백인범죄자를 비호두둔하고있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이다. 범피자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의 항의에는 귀를 막고 당국은 군견까지 앞세운 중무장한 경찰들을 시위진압에 내몰았다. 이러한 가운데 19일에는 미주리주의 스프트 루이스에서 23살 남 흑인청년 한명이 경찰이 쓴 총탄에 맞아죽는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인종과 피부색이 다

규판과 조종을 당하고있다. 미국은 적막한 공화국의 《인권》이 어쩔수 없이 적대시압살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엔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추한 모습부터 들여다보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흑인청년살해에 항의하여 시위하는 미국인들

##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2014년 8월 22일(금) 오후 1시, 청운동 사무소 ● 세월호 침사 국민대회의 / 평화문 국민단식 참여 각계 원로 및 대표단







# 민족의 자랑 동명왕릉과 그 주변의 역사유적들

평양시 룡포구역 통산리에 가면 고구려 시조왕 동명왕의 무덤이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동명왕은 지난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를 세운 왕이다. 고구려사람들은 강국으로서의 고구려를 건국가를 창건하고 그 기틀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동명왕을 신격인 존재로 숭배하였으며 그의 무덤도 특별히 잘 꾸리었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은 그가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에 있었으나 5세기 중엽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시조 동명왕의 무덤을 현재의 위치에 가져왔다.

동명왕릉이 있는 지대는 산과 강들이 적당히 배합되

어 있어 살기 좋고 경치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후 동명왕릉은 외래침략자들의 파괴도 줄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존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지난날 사람들과의 시야밖에 있던 동명왕릉을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손색없이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동명왕릉을 거례에게 민족적근지와 애국심을 북돋아주는 역사유적으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주시었다.

하여 동명왕릉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건되어 1993년 5월에 준공하였다. 동명왕릉은 고구려시조왕의 무덤답게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의 위용을 시위하듯 웅장하게 솟아있다. 돌칸흙무덤인 동명왕릉의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며 높이가 11.5m, 무덤한변의 길이는 34m이다. 왕릉의 정면에는 돌상과 돌등 그리고 벽조각상이 있고 좌우양으로 오이와 마리, 송양, 재사를 비롯한 문관들과 부노노와 무기, 무물 등 무관조각상들, 그들이 타던 말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무덤구역의 아래단에는 동명왕의 출생과 활동,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사실들이 적혀져있는 《고구려시

조동명성왕비》와 《고구려시조동명성왕기적비》가 세워져있다. 동명왕릉으로부터 약 120m 떨어진 곳에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고구려시조의 사찰이었던 정릉사가 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을 발굴하면서 주변의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알려져 발굴되었다. 정릉사는 고구려사람들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오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393년에 지은 사찰이다. 정릉사의 부지면적은 3만 7 000㎡로서 세나라시기 사찰들 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클뿐아니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있다. 즉 크게 다섯개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는데 그 안에 18채의 크고작은 건물들과 탑이 있었고 매 구역과 구역, 건물들사이에는 회랑으로 연결되어있었다. 정릉사는 8각탑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동쪽, 서쪽에 세체의 금당을 배치한 구조

의 사찰이다. 이와 같은 1탑 3금당식사찰은 고구려에만 있었다. 이밖에 동명왕릉주변에는 19기의 고구려시조의 돌칸흙무덤들이 분포되어있다. 무덤들에는 동명왕과 함께 고구려를 세우는데 참가하였거나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승우, 오이, 부분노, 고승, 마리, 고흙, 부위염, 다해환노, 갈로, 맹망, 은달 등 장군들과 대신, 학자들이 묻혀있다. 동명왕릉주변의 고구려무덤들은 마치 왕릉을 호위하는 것처럼 배치되어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동명왕이 살아있었을 때는 물론 죽은 후에도 충신들의 호위를 받고있다고 생각한것과 관련되어있다. 거례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동명왕릉으로는 해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동명왕릉

정릉사의 일부

##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체육음료

최근에 체육인들뿐 아니라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속에서 체육음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체육음료는 체육경기나 운동을 할 때 인체에서 소모되는 수분과 에너지를 빨리 보충해주어 육체적능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게 만든 음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운동을 할 때 몸안에 축적된 당질이 에너지를 전환되면서 내는 열을 땀을 통하여 밖으로 내보내어 체온을 유지한다. 특히 마라톤을 비롯한 중장거리달리기, 축구, 통구와 같이 육체적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일반음료를 마시면 물과 당이 체액으로 잘 흡수되지 못하므로 갈증이 계속

나며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체육음료가 일반음료와 다른점은 우선 전해질농도를 높여 물이 몸에 잘 흡수되게 한것이다. 체육음료생산에서는 염화나트륨이나 인산나트륨을, 칼륨염을 전해질첨가제로 리용하고있으며 이 물질들의 짠맛과 쓴맛, 짠맛을 가리우기 위해 레몬, 감귤즙과 같은 과일즙을 많이 쓰고있다. 체육음료가 일반음료와 다른점은 다음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당질을 넣어 운동과정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속에 에너지를 전환원으로 축적되게 한것이다. 본사기자

일반음료에는 비탄, 당노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는것을 막기 위해 당질을 적게 쓰거나 비당질단맛감을 많이 쓰지만 체육음료에는 결정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사탕, 물엿, 옥당과 같은 에너지를 전환당질을 리용한다. 지금 체육음료는 액체형과 가루형으로 생산되며 그중에서 액체형이 75%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최근 체육영양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체육음료는 단순히 물과 에너지를 보충하는 음료만이 아니라 피로회복과 신체조절기능을 갖춘 다기능성음료로 발전하고 있다. 본사기자

## 교양, 수양 (2)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한다.》 배우는것은 한계와 끝이 없으므로 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야 함을 이르는 말.

《사람은 작게 날아서 크게 길러야 한다.》 사람은 크게 날아서 큰사람이 되는것이 아니라 교양을 잘하여 키워야 큰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어려서부터 교양을 잘해야 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재도 멀어아 솟음이 빛난다.》 재를 털어버려야 붉게 되는 솟음이 제 빛을 드러내듯 늘 자신을 반성하여 자기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을 없애버려야 자신을 더 빛낼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고인물이 썩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음을 교훈적으로 비겨 이르는 말.

## 불독하니 (2)

(...바로 그때 왕릉을 헤치려던 왜놈들이 우리 월정사를 들이친것이 틀림없어.) 양사방은 이를 부드득 갈며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는 백호의 가치가 순금이라는 재물이란 것이 아닌줄 잘 알고있었다. (우리 조선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성왕님의 상징인 백호를 더러운 섬소랑개들한테 빼앗기다니...) 먼 옛날 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몇십년전인 846년에 벌써 구월산 돌전에 넘겨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대손손 단군성왕을 잊지 않을 년월으로부터 단군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나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 사찰을 하나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 사찰이 들어앉을 명당자리로 지금의 월정사가 앉은 그 장소가 선정되었다. 단군이 오래동안 생활한 곳으로 알려진 단군굴, 오늘날에는 단군성왕이라고 불리우는 단군이 무술을 연마하던 아사봉기슭의 이 자리가 상 더 좋은 자리는 없을것이었다. 사람들은 뜻대로 사찰을 잘 지은 다음에 부처를 모시는것만으로 만족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성의껏 시주를 하여 단군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된 백호를 부처의 이마 한복쪽에 박아넣었다. 한것은 민족시조인 단군을 밝은

입김으로 칭송하느만큼 밝은 해마냥 둥근데다 변함없이 빛을 내는 순금백호가 단군의 상징으로 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으며 따라서 자자손손 그 정성으로 월정사를 찾아가 그 상징앞에 단군의 명복을 빌고 나라의 창창한 장래를 축복하여 빌기를 마지않은 세월이 흘러 어언간 천여년... 바로 이런 사연으로 하여 양사방의 조상들은 민족의 시조를 받는 궁지를 안고 대를 물려가면서 월정사 불복하니노릇을 이어가고있는것이였다. 아난게아니라 월정사에 다른 사찰들에서는 찾아보지 못한 이렇듯 특이한 명분이 없었다면 양사방은 월정사 불복하니가 아니라 고향 통연에서 불교나 님으며 조용히 살아갔을것이다. ...단군은 5 000여년전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문물을 크게 일으켰다. 단군의 《경천예민》, 《리화세계》, 《홍익인간》의지에 따라 조선은 유구한 역사를 즐기한 문명창조로 가득채웠다.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단군의 후손으로 된 자부를 안고 그를 더더욱 숭배하였다. 아울러 단군이

1 500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리고 1908년에 구월산의 산신으로 되었다고 전해져내려오는것으로 하여 구월산리라는 이름이 되었다. 월정사를 찾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건 단군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먼저 단군굴을 상징한 백호를 바른 부처가 있으므로 이 사찰은 우리 백성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것이다. 동방의 문명국을 일떠세워 나라를 빛낸 민족의 시조를 숭앙하는 이 나라 백성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양사방도 단군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전설처럼 믿고 있었다. 하여 그는 단군상징의 백호가 있는 월정사 불복하니노릇을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타고난 직분으로 영예롭게 생각하고있었던 것이다. 양사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복하니가 된 이듬해 10월 3일이었다. 개천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온 나라의 뜻있는 인사들이 구월산으로 모여들었다. 먼저 삼삼사사(현재 안악군 패령리 전동구역)에 올라 환인, 환웅, 환검(단군) 등 세 성인의 화상에 경건한 인사들 울린 그들은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월정사를 찾았다. 한것은 월정사가 시조의 자취우에 당당히 서있고 시조의 상징을 지니고있을뿐

나라 시조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흥망을 축복하는 사찰이라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을 끈 때문이었다. 이날의 일행들속에는 당시 나라의 실권을 잡고있던 고종왕의 아버지인 대원군 리홍영이 가장 믿는 신하들도 하여금 섞여있었다. 월정사를 찾은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건 단군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먼저 단군굴을 상징한 백호를 바른 부처가 있으므로 이 사찰은 우리 백성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것이다. 동방의 문명국을 일떠세워 나라를 빛낸 민족의 시조를 숭앙하는 이 나라 백성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양사방도 단군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를 전설처럼 믿고 있었다. 하여 그는 단군상징의 백호가 있는 월정사 불복하니노릇을 그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타고난 직분으로 영예롭게 생각하고있었던 것이다. 양사방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복하니가 된 이듬해 10월 3일이었다. 개천절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온 나라의 뜻있는 인사들이 구월산으로 모여들었다. 먼저 삼삼사사(현재 안악군 패령리 전동구역)에 올라 환인, 환웅, 환검(단군) 등 세 성인의 화상에 경건한 인사들 울린 그들은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앞을 다투어 월정사를 찾았다. 한것은 월정사가 시조의 자취우에 당당히 서있고 시조의 상징을 지니고있을뿐



이들을 주지가 안내하여 본당인 극락보전의 부처님에 이르렀을 때 승정원 승지가 자기 자신의 월정사에 처음 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의미심장하게 하여 못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사람이 회갑을 넘기도록 이 나라 팔도의 명 《그렇게 묻는 시주님들이 드문하오이다. 다른 사찰들의 백호의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이곳의 백호는 단군시조님의 자취가 깃든 성지에 있는 백호여서 그 의미가 특별하오이다.》 그가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레조참의가 앞질러 또 물



선군절 54돐경축 평양시학생소년들의 대동강도하경기 진행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지난 10여년간 수술없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과 암이 전이되기 시작한 사람들의 생존기일을 훨씬 늘이였다. 암환자들의 대부분은 암의 전이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암의 전이를 막는 데서 효과적인 면역치료방법들을 임상실험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이고있다. 의학과학원 중앙연구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암예방, 전이예방의 질적수준을 세계적수위에 올려세우고 임상실험에 받아들이었다. 지난 10여년동안 수술을 받은 수백명의 암환자들에게 암예방을 집중한데의 하면 간암환자들의 5년생존율이 제일 높았다. 치료과정에 이들은 간암, 폐암,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암예방치료를 배합할 때 5년생존율이 종전

의 다른 치료방법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것을 확증하였다. 이곳 연구자들이 개발한 암예방을 함양제주사를 맞은 후에 일반적보다 크게 되는 머리칼빠지기, 심장계통과 소화기계통 및 비뇨기계통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나 없으면서도 치료효능이 높아 여러 나라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이들이 만든 암예방은 몇해전에 진행된 유럽의 어느 한 국제토론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콩팥암치료에서 뜻밖의 좋은 결과를 본 외국의 한 인사는 지난해에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갈 높은 목표를 세운 이곳 연구자들은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며 최첨단수술은 수술후 전이되기 시작한 암환자를 치료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미 개발한 암예방과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

고있는 함양제들을 배합한 새로운 암치료방법을 임상실험에 받아들인 후 간암, 폐암, 위암 등이 전이된 환자들의 생존기일이 훨씬 늘어났다. 암이 전이되어 몇달 혹은 한해밖에 살지 못할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수십명의 사람들이 세계적수위에 확고히 올라선 암치료방법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았다. 평양시 형제산구역에서 사는 한 녀성은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이 캉캉했던 자기가 다른 나라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값비싼 치료를 무상으로 받으며 꿈과 같이 건강을 회복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었다. 중앙연구소의 연구자들은 지금 암예방에서 짧은 기간에 세계를 확고히 디디고 올라선 야심만만한 배합을 지니고 지난 시기 이룩해온 성과를 더욱 확대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 역사가 오래고 우수한 조선의 가무

우리 나라에서 가무의 역사는 매우 오래다. 우리 나라에서는 B. C. 3000년경에 해당하는 청동기문화중에서 벌써 백피리, 청동방울을 비롯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리용되는 관악기와 타악기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고대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는 가무는 세나라시기에 이르러 더욱 성행하면서 적지 않은 유산들이 창조되었다. 이 시기들에 가무의 지방적특성이 강해졌는데 대

표적인것은 함경도의 《돈돌리리》, 강북지방의 《널리리》, 강원도의 《회양닐리리》 등이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그 역사가 오래뿐아니라 예술형상적으로도 우수하다. 우선 다양한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각종 노동생활과 반침략, 반봉건투쟁, 인정세태, 무병장수, 민족유리 등 다양한 생활을 반영하고있다. 또한 룰동성이 풍부하고 형상표현력이 강하다. 우리 민족의 가무는 특히 장단이 좋다. 선조들이 즐겨 리용한 물장고는 소리가 예리하지 않고 그 울림의 여운이 길뿐아니라 웅글지고 구성진 울림으로 하여 세계 그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민족고유의 가무반주단이였다. 가무는 우리 민족의 정서생활과 민족예술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무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서생활수단이였다. 대체로 민

속명절이나 경사로운 날에 가무놀이를 진행하는것이 보통이었던 다른 민족들과 달리 우리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가무를 즐기면서 살아왔다. 이에 대해 19세기 우리 나라를 돌아본 외국인 《조선기행》이라는 글에서 《아시아민족들중 조선사람보다 음악에 대하여 열렬한 애착을 가진 민족은 없을것이다.》라고 썼다. 반침략투쟁에서도 가무는 큰 역할을 놀았다. 우리 선조들은 외적을 쳐부시는 싸움터로 출전할 때에도 가무로 사기를 돋구고 외적들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도 농악을 울리며 노래춤을 펼쳐놓아 적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였다. 일진 조국전쟁시기에 창작된 《강강수월래》, 《페지나 청청내내》 등은 그 대표적인것들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전해져온 락천적이며 정서가 풍부한 가무는 오늘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서 훌륭히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에 있다. 두 탑은 8세기 중엽에 세운 돌담으로서 세상에 자랑할만한 건축유산이다. 다보탑은 2m이며 대 높이가 10. 4m이며 불국사의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다. 다보탑은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균형미를 띠고있으며 열핏 보아도 안정감을 주면서도 날씬해보이는것이 녀성적이다. 석가탑은 높이가 약 8. 2m이며 대 높이가 10. 4m이며 불국사의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 있다. 다보탑은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지만 조화로운 균형미를 띠고있으며 열핏 보아도 안정감을 주면서도 날씬해보이는것이 녀성적이다. 본사기자

## 녀성적인 다보탑과 남성적인 석가탑

연구자들이 버섯을 해빛처럼 하면 비타민D함량이 늘어난다는것을 밝혀냈다. 비타민D는 암예방에 유익하며 유기체의 칼슘흡수에 도움을 준다. 연구자들은 버섯을 토리하기 전에 햇빛에 30분동안 놓아둘것을 권고하였다. 이 시간이면 자외선이 버섯의 비타민D생성을 촉진하는데 충분하다. 실험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수확이후에도 버섯에서는비타민이 계속 생성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버섯이 천연비타민D원천으로서 극히 필요한 식품이라고 말하였다. 비타민D는 인체건강에 가장 유익한 비타민중의 하나이다.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암과 심장병, 당뇨병, 천식, 우울증, 비만증의 발생위험성을 훨씬 줄일수 있다. 본사기자

수확이후에도 버섯에서는비타민이 계속 생성된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버섯이 천연비타민D원천으로서 극히 필요한 식품이라고 말하였다. 비타민D는 인체건강에 가장 유익한 비타민중의 하나이다.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암과 심장병, 당뇨병, 천식, 우울증, 비만증의 발생위험성을 훨씬 줄일수 있다. 본사기자